

III. 해외마케팅.투자정보 하이라이트

■ 이라크 시장에 적합한 중소형 플랜트

- 이라크의 경우 1980~88년까지 약 8년간 지속된 이란과의 전쟁, 1990년 8월부터 시작된 12년간의 UN 제재로 인하여 약 20년간 방치 되다시피한 기존 공장의 개·보수 및 신규 공장 건설용 산업설비 누적 수요가 엄청난 실정임.
- 국영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라크 최대의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의 경우도 최신 설비라고 말하는 것이 대체로 1980년 이전에 건설된 것들이어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.
-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UN 제제가 해제되고 더욱이 전후 민간 기업 육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, 즉 석유를 제외한 전부문의 민간개방, 외국인 100% 투자허용, 소규모 프로젝트 정부 지원 강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그 동안 민간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던 요인들이 한꺼번에 해소되어 적어도 법적·제도적 장벽은 사라지게 되었음.
- 국영기업들은 그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옴에 따라 50% 미만의 가동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나, 전후 전면 수입개방 조치와 특허 폐지로 독자적인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해 있음.
- 따라서 전후에는 국영기업에 의한 투자 보다는 민간 자본에 의한 중소형 제조설비 투자가 가장 유망한 분야로 예상되고 있음. 비록 치안 및 정치 불안으로 아직은 민간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, 시기가 문제일 뿐 민간부문의 제조업 투자분야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치안이 다소 안정될 경우 투자가 본격화 될 분야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신할 수 있고 투자액 회수가 비교적 빠른 건설 유관 부문(철근, PVC Pipes, 내·외장재, 벽돌, 시멘트, 아스팔트)을 비롯한 수송기계, 생수, 청량 음료 등 식음료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됨.
- 이들 부문의 경우 치안 불안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 무역관에 인콰이어리 문의를 해오는 현지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비 도입 상담을 위해 10월 중에만 13개사가 방한 할 만큼 적극적임.

< 對이라크 수출유망 중소형 플랜트 >

유망 분야	현지 시장 여건	아국 업체 착안사항
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(asphalt Mixing plant)	- 전국에 걸쳐 약 60 개 공장이 가동중이며 대부분 1980 년대에 건설된 노후설비 - 약 60%에 불과한 도로 포장율, 실업해소를 위한 대규모 도로포장 공사 발주 등으로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수요 지속 증가	- 건당 50 만불 미만 반자동식 (semi- auto) 설비 공급을 선호하는 편 - 권장 생산설비 케파는 120 T/hr - 현지 토목 공사 수주시 단독 투자 혹은 국영기업 인수 바람직 - 현지 업체는 안전한 합작투자 선호
자동차 부품 플랜트 (auto parts plant)	- 약 270 만대 등록 차량 중 종전후 수입차량이 70 만대에 달할 만큼 수입 활발 - 완성차 수입 자유화에 힘입어 2010 년까지 년평균 25 ~ 30%씩 수입증가 예상 - 완성차 수입 급증에 비해 현지 부품 생산업체는 매우 영세 - 유망분야: 필터류(oil,air & fuel), 가스켓,브레이크 패드 등	- 전후 한국산 중고차 약 36 만대 대이라크 수출로 국산 중고차 인지도 급격히 증가 - 국산차 부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수용 소모성 부품 중심으로 수입상들의 현지 생산 전환 움직임 증가 - 대형 부품 수입업체들 중심으로 필터 및 브레이크 패드 부품 단독 생산 및 국내 업체와의 합작투자 선호
생수공장 (mineral water plant)	- 종전 후에도 상수도 오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민간 기업 차원의 생수 수입 급증. 수질 오염으로 수돗물 식수로 부적합 - 과도한 운송비 부담으로 인해 국내 생수 공장 설립 필요성 증가 - 이라크 북부 산악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중.소규모 생수 공장 건설 움직임 가시화	- 로컬 생산 50 만리터, 수요는 150 만리터로 초과수요 지속 - 투자자들은 0.6 리터,1.5 리터, 5 갤론 및 7 갤론짜리 PET 생수 설비를 희망하며 표준 케파는 일산 45,000 ~ 70,000 리터 - 주변산업 미 발달로 PET 용기 생산부터 세척(rinsing), 투입(filling), capping, 인쇄에 이르기까지 일관 공정 투자 희망 - 오존가스 및 UV 필터 방식의 소독 선호 - 현지 대형 플라스틱 업체들이 주요 투자자
p.p 포대 플랜트 (p.p.	- 농업 및 군수용으로 연간 약 1 억개를 소비하고 있으나 로컬 생산량은 기껏해야 30%에 불과한	- 표준 사양: 규격 10*10, 9*9, 9*10 인치 circular weaving m/c, 6 shuttle extruder. 중량

wovenbag plant)	만큼 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 - 비교적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하여 설비도입에 적극적	120-130 그램 - 1 일 3 교대 풀가동 기준 연간 1 천만개를 생산하는 전자동 시스템 선호 - 바이어들은 국내업체와의 합작투자를 선호하는 편이나 턴키 베이스의 주문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갖고 있음.
자동차 배터리 제조설비 (automobile Battery plant)	- 전후 중고 승용차 수입 급증, 물동량 증대에 따른 트럭 증가, 전력부족 해소를 위한 제네레타 대거 수입 등으로 금년중 배터리 수요 50% 이상 증가 예상 - 이에 비해 로컬 생산은 1 개사에 불과하여 수요의 99%를 수입에 의존	- 한국산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46%로 1 위를 달리고 있으나 운송료 부담이 만만찮아 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현지 조립생산 적극 검토할 시기 - 관련 부품 산업 미발달로 플랜트 1 기당 최소 5 백만불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'babil' 상표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이라크 유일의 국영 배터리공장과의 합작 투자도 적극 고려할 시기
음식물 쓰레기 처리설비 (garbage Treatment plant)	- 일일 쓰레기 배출량 약 2 만톤이며 수입 개방에 따른 물자 범람으로 쓰레기 배출량 증가추세 - 기존의 쓰레기 처리 설비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단순매립에만 의존하여 환경문제 야기 - 재처리 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	- 일일 1,000 ~ 2,000 톤 규모의 설비가 적당 - 종이, 유리 및 금속플라스틱 분리처리 -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 자동설비 선호

(문의처 : 바그다드무역관 김규식 kskim@kotra.or.kr)